

'설레임 그리고 씬!' 풍경 전시회

'장순 서양화가 초대 개인전'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서 개최

'설레임 그리고 씬!'을 주제로 한 장순 서양화가 초대 개인전이 오는 30일부터 4월 26일까지 신대인에 소재한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고 센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레임 그리고 씬!' 전시회는 바다와 산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풍경 전시회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울한 일상에 대한 치유의 마음을 담아냈다.

전시회에서는 자연이 주는 정서적 감성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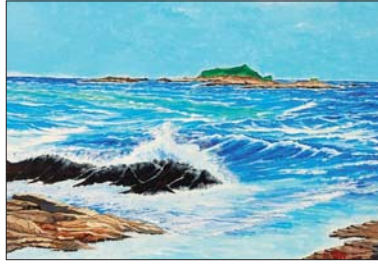
적 관점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색채로 표현한 수채화, 아크릴화 작품 37점을 선보인다.

4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순 작가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초대전을 갖게 되어 설레임과 함께 큰 기쁨이 불기운에 실려 다가온다"며 "이번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읍 출신의 장순 작가는 전북대학교



'설레임 그리고 씬!'을 주제로 한 장순 서양화가 초대 개인전이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서양화)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직 후 현재 서양화가로 활동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4월 4~11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4월 11일까지 '2022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과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공모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소극장(소공연장) 지원, ▲우리가라 우리마당 지원, ▲문화예술 교류 지원,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이며, 총지원금은 12억 2천만 원이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창작작품 중 우수 공연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단체별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사업비는 5억 원이다.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의 창작공간인 소극장(소공연장)을 운영 중인 개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총 2억 4천만 원이다.

우리가라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야외 공연을 기획·운영할 단체를 지원하며 야외 상설공연 운영단체는 1억 원, 군 단위 찾아가는 공연 운영단체는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총 1억 6천만 원이다.

문화예술 교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다수의 국가에 출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해외 교류 활동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 총액은 5천만 원이다.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문화 분야 및 시각예술 분야 창작공간을 운영 중인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다.

민간문화시설 기획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

내 민간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의 기획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1억 원이다.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소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총지원금은 5억 9천만 원이다.

한편 올해부터 일부 사업은 연속 지원이 제한된다. 소극장(소공연장) 지원과 창작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3년 연속 선정된 경우 차년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며,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지원 받았다면 다음 년도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모든 사업의 신청 기간은 4월 4~11일까지며, 국가문화예술통계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 받는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문화정책 시사지 웹진 '온전' 제4호 발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예술과 브랜딩 그리고 문화창조자로서의 팬'을 주제로 한 웹진 '온전' 제4호를 발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팬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예술가, 기관, 단체의 브랜딩 전략과 콘텐츠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이를 집중 조명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기획특집 좌담에서는 서상혁, 전진모, 허영균, 김해리가 플랫폼의 관점으로 브랜딩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편, 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여 예술가와 단체, 공간의 브랜딩 방식과 관계 맺기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남용의 비평적 팬덤을 상상하는 전시와 팬에 관한 에세이와 제담, 강영훈의 지역을 낚나들

며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브랜딩 이야기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전통이라는 오픈소스 - 서사의 공동체'를 테마로 이어졌던 연재 코너는 해당 호의 주제에 관한 편집위원의 생각과 경험이 글로 담길 예정이다.

비평과 리뷰 코너는 '전주'에 집중해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화예술 현상과 활동을 예술 분야의 다양한 분들의 눈으로 관찰하고자 한다.

한편 문화정책 시사지 웹진 '온전'은 2021년 8월 창간해 올해 3월 제4호를 발간했다.

구독을 희망하는 독자는 재단 홈페이지(jcf.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독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5천 원 상당 모바일 교환권이 제공된다.

/장은성 기자

'별별전북여행' 참여자 공개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은 '2022 전라북도 한 달 여행하기(별별전북여행)'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는 4월 14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4월 7~14일까지 이메일(wisera79@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만 19세 이상 전라북도 외 거주자 중 전라북도 장기체류 여행이 가능한 자'로, 25팀 내의 선발할 예정이다. 특히 전라북도의 관광콘텐츠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여행 작가, 유튜버, 블로거 등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유형은 일반, 워케이션(Workation) 유형 등 두 가지다. 일반 유형 참여자는 최소 7박 이상 연속 체류 가능자, 워케이션 유형 참여자는 3박 이상, 그리고 여행 시작 전 회사 출장 확인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소장 작품 대전 순회전

4월 10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서 '법고창신' 주제 개최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소장 작품 대전 순회전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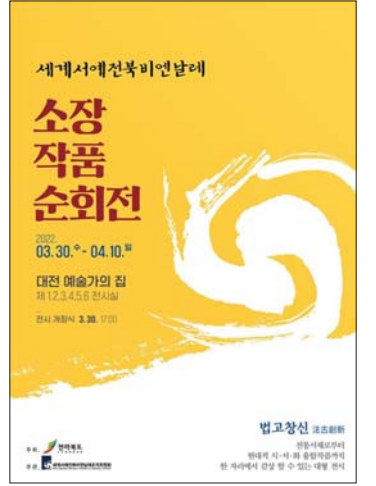
이번 대전 순회전은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로 된 전통서체에 현대 서예가의 개성을 담아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구현한 작품 160여 점을 선보이며, 현대 한국서예의 풍격(風格)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서예의 다양한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대전과 충남 지역의 아름다운 산하를 표현한 작품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지역 예술인들의 공동작품이자 지역사랑을 엿볼 수 있는 작품 10여 점도 전시되는데, 갑천, 계족산, 대청호, 보문산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소재로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시인이 시를 짓고, 서예가가 글을 쓴 작품이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가 소장하고 있는 수준 높은 서예작품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순회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대전을 시작으로 서울전, 부산전, 순창전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서울 전시는 '철필의 미학'을 주제로 6월 1일부터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부산 전시는 '필선의 미학'을 주제로 4월 17일부터 부산시청 전시실에서, 순



창 전시는 '서예, 숲을 만나다'를 주제로 4월 8일부터 전라북도 산림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는 1997년부터 26년 동안 서예비엔날레를 개최하면서 국내·외 서예가들에게 기증받은 작품 1,917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비엔날레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국·내외 순회전(국내 38회, 국외 6회)을 44회 개최해 오고 있다. /장은성 기자

'인문학으로 전주 맛보다' 음식강좌 운영

한국전통문화전당, 3개 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이 4월 한 달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를 인문학 관점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문학과 함께하는 전주 음식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지난 강좌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운영 회차와 인원을 확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인문학 강좌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주를 인문학 관점에서 알아보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맛보는 조리체험을 내용으로 ▲전주10미를 활용한 전주음식 교육 ▲맛있는 전주, 찾고! 맛보고! ▲발효음식 교육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주10미를 활용한 전주음식' 교육에서는 실존악기나리빙채를 비롯, 애호박새우말이, 콩나물오코노미야가, 열무김치 등 코로나19로 저하된 우리 몸의 면역력과 건강을 더할 수 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조리체험이 진행된다.

'맛있는 전주, 찾고! 맛보고!' 교육에서는 맛있는 전주음식과 건강을 더하는 음식을 대해 알아보고, 오색 쌀강정, 파프리카 물김치, 치즈 들깨죽, 마뽕안심살전 등 생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강사인 '저염반찬,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하는 '건강간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발효음식' 교육에서는 발효음식의 개념과 음식문화에 대한 이론교육에 덧붙여 더덕마늘 간장장아찌, 만능간장, 햇감자로 만드는 감자 장아찌, 만능고추장 등 나만의 비법 발효음식 만들기 조리체험 교육도 진행돼 주목을 끌 전망이다.

강좌는 평일뿐 아니라 금요일 저녁과 주말 등으로 운영 시간을 확대, 전주 시민 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에서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전주 음식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강좌 신청은 전주음식이야기(jonjufoodstory.or.kr)에서 가능하며, 3월 29일부터 선착순 모집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신청이나 세부 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음식이야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식문화진흥팀(063-281-1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5월에는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를 열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와 방향으로 인문학 강좌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